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지옥과 천당은 한집만이다

장학생 선발 오렌지중양교회

웨스트민스터의 오렌지중양교회(담임목사 유원선, 13522 Goldenwest St., Westminster, CA 92683)가 장학생을 선발한다.

신청 자격은 미국 내 2-4년제 대학 또는 신학 대학원에 재학하는 풀타임 학생이며 선발 인원은 약 10명이다. 선발된 장학생 1인당 1000달러씩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8월 14일(일)까지다.

신청서는 이 교회 홈페이지(orangechurch.org)에 링크된 구글 양식으로만 접수한다. 기타 제출 서류는 장학금 신청서, 자기소개서(1-2쪽), 신앙 간증서(1쪽), 추천서(목회자와 교수 각 1부), 성적 증명서이다. 장학생 선발 결과는 9월 4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이 교회는 지난 2010년부터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고 복음 안에서 꿈을 이루기 원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문의: okec.scholarship@gmail.com

'코리안 페스티벌' 개최 헌팅턴비치한인교회

'헌팅턴비치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현석, 8121 Ellis Ave., Huntington Beach, CA 92646)가 '코리안 페스티벌' 을 연다.

오는 30일(토) 오후 2-5시까지 이 교회 강당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한국의 가곡을 비롯해 7080 가요 공연, 한국 전통 차와 음식 소개, 이산가족 증언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4월 교회의 문을 연 김현석 목사는 "우리 교회는 헌팅턴비치에 있는 유일한 한인 교회이다."라며 "이번 행사에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행사 참석하려면 오는 25일까지 hbkorean-church@gmail.com으로 예약하면 된다.

법문을 할 때는 "나무아미타불"을 염하고 나서 시작합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한 번 부르고 나면 죽는 큰 죄, 팔백 겁의 죄를 녹여 버리는 공덕이 생깁니다. 나무아미타불을 한 번 부른 공덕이 이럴할진대 참선의 공덕은 말할 것도 없지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게 생기는 좋은 일, 나쁜 일 모두가 자신으로부터 비롯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모두가 남의 탓만 하고 앉아 있어요. 이는 죄받을 일, 죽을 일을 만들고 앉아 있는 것과 똑같아요. 모두가 "내 놀음"입니다. 내 마음, 내 공로만큼 받는 것이니 가만있어도 부처님이 복을 지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더는 없을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내 마음"을 몰라가지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질이 풍부하든 그렇지 못하든 내 마음을 모른다면 귀신이 중간에 끼어들어 속이고 다니며 죽을 길로 끌고 갑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나의 주체성을 잃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조금치라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가서 행복을 찾으려고 야단이니 어서 빨리 내 마음을 찾는 공부를 해야지요.

내 마음속에 보물이 있는데 밖에서 구하려고 하니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콧구멍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있고, 귓구멍 속에 한량없는 부처님 나라가 다 들어 있다고 했습



니다. 깨치고 보면 시방세계가 모두 나로부터 나오고, 하늘과 땅, 해와 달을 내가 만들어 낸 것입니다.

도는 모양이 없는 것이어서 물건과 같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천 분이 나타나신다 해도 나의 일은 모릅니다. 자기 마음은 오로지 자기가 깨달아 써먹어야지요.

팔만대장경을 다 외운다고 하더라도 "이 뭐꼬?" 하며 참선만 하는 사람을 당하지 못합니다. 도라는 것은 오직 내가 깨닫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말이지요. 참선보다 더 큰 기도는 없고, 참선은 곧 활구요, 정법이지요, 부처입니다.

부처의 '佛(불)' 자를 몰라도 부처님이 참선을 해서 부처가 되었다는, 이 뜻을 아는 사람은 그대로 '살 길'을 만난 겁니다. 사람의 몸을 받았으니 참선 공부를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러한 법을 만났다면, 이보다 더 복이 많은 사람은 없겠지요.

마음자리에서 보면 모든 인간관계가 터럭 끝만도 못한 것인데 사람들은 내 아들, 내 딸 하면서 집착하고 또 집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부처님 시대에 어느 집에서

든 아이만 낳으면 잡아다가 자기 새끼에게 먹이는 귀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귀신의 버릇을 고치려고 그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막내아들을 빼앗아 왔습니다. 귀신은 애가 타서 부처님을 찾아와서는 "내 막내아들이 없어졌으니 부처님의 도력으로 찾아주소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부처님은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고 싶거든 이제부터는 사람을 잡아다가 먹이지 말아라" 하시며, 바릿대에 담아 두었던 귀신의 막내아들을 내어주더라고요. 이때부터 귀신은 바릿대 물을 먹고 살았고,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복을 짓고 살아봐야 나고 죽는 씨앗이 되어 버려 천상의 불구덩이밖에 못 가고, 불구덩이에 가면 도로 지옥에 가지요. 지옥과 천당은 한집안이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만이 고생이 아닙니다. 나고 죽으러 다니는 고생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고 죽는 일이 없는 극락 세계가 있는데 왜 사서 그러한 고생 길을 만들습니까?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대로가 극락이에요. 부처님의 은혜를 하늘과 땅에 비할 수가 있습니까? 이 한 몸 다 바쳐도 부처님의 은혜를 갚지 못합니다. 도인이 되어 중생을 제도할 때에 그분의 은혜를 갚을 수 있지 물질적으로는 갚지 못합니다.

참선 열심히 해서 부처가 됩시다. 참선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정진하기 바랍니다.

-혜암 스님-

그래픽=shutterstock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1429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45에 있습니다)

5		7		8	1
	1		8	2	
		2	3		6
7		4		9	
			2		1 8
		6		3	7
	6	5		3	
3	9		7		
					1 3